

# 장성군, 쌀값 안정 지원책 마련에 행정력 집중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쌀생산량 적정유지 목표

장성군이 쌀값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전략작물직불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시행할 방침이다.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쌀 생산량을 시장 경쟁력이 확보되는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올해 정부 목표는 전국 쌀 재배면적을 3만7000ha 가량 줄이는 것. 이에 따른 장성지역의 감축 목표 면적은 188ha다.

장성군은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논 타작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논 타작물 지원사업은 작년에 벼농사 지었던 논에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여기에 군비 지원을 추가해 타 지역보다 ha당 50만원 많은 2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가능한 품목은 두류와 옥수수, 참깨, 고구마 등 일반작물이다.

'전략작물직불제'도 시행한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콩, 하계 조사료 등을 벼 대신 재배하면 기존 기본형공익직불금에 추가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가는 계절과 품목에 따라 다르다.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헥타르당 50만원, 여름철에 논콩을 재배하면 100만원이 지급된다. 겨울에 밀과 조사료를, 여름에 논콩을 이모작하면 100만원이 추가 지원돼 총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계 조사료는 헥타르당 430만원이 지급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작년 벼 재배 농지 또는 감축협약 참여 농지에 올해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장성군이 쌀값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지원사업 등 행정력을 집중한다. 장성군 제공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ha당 최대 150~300포 추가 배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전략작물 직불제는 3월 말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5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

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한편 농업인,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간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 커피 바리스타 전문 양성 교육 함평군, 38명 교육생 자격 취득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했다.

7일 함평군에 따르면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증과 카페 핸드드립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1월27일~2월8일 14회 진행됐다.

교육은 커피의 역사, 에스프레소 및 카푸치노 만들기, 핸드드립 기본원리 등 이론 및 실습교육이며 38명의 교육생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이 개발돼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 담양군 정보화 교육 수강생 모집 농업인 정보화 능력 강화

담양군이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비해 농업인의 정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한다.

7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기초 컴퓨터 활용(디지털 첫걸음반), 스마트폰 기초(안드로이드), 인터넷 기초 및 활용의 초급 3과정과 스마트폰 활용(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되기, 한글문서 작성, 파워포인트로 앨범 만들기, 온라인 홍보물제작, SNS활용하기 중급 6과정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9과정을 운영한다.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인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되며 4월~9월 과정별로 주 5일(월~금), 2시간씩 진행된다.

각 과정 당 2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교육경영팀(061-380-34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진용 기자

## 함평나비아구스스포츠클럽 우승 전국유소년대회

함평나비아구스스포츠클럽이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체육회는 함평나비아구스클럽이 전북 고창 고창스포츠타운생활야구경기장에서 열린 '고창풍전장아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새싹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총 48개팀(새싹 8팀·연꽃 12팀·꿈나무 8팀·유소년 14팀) 56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연식부와 경식부로 나누어 열렸다.

새싹부 A조에 출전한 함평나비아구스클럽은 1회전에서 동탄베이스볼(DTB)를 상대로 6대 2로 이기며 첫 승을 신고했다.

2회전에서 제천시 10대 0 완승, 3회전 14대 3으로 이기며 예선 3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B조 2위인 충북 옥천금강을 만난 함평나비아구스클럽은 팽팽한 접전 끝에 6대 4로 승리하며 마지막 무대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동탄베이스볼을 다시 만난 함평나비아구스클럽은 11대 1 대승을 거두며 우승기를 차지했다.

황필선 함평나비아구스클럽 감독은 "선수들이 공부와 병행을 하면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즐거워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 다육 가드닝 전국대회 참가자 모집 화순군, 31일까지 접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31일까지 다육 가드닝 전국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화순군은 '봄꽃과 함께하는 화순 고인들 축제'와 반려식물 경연대회를 연계해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반려식물인 다육을 테마로 기획된 '다육 가드닝 전국대회'는 4월21~26일 '봄꽃과 함께하는 화순 고인들 축제'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다육을 사랑하는 전 국민으로 신청방법은 화순군 홈페이지에 다육 가드닝(테이블 꾸미기) 사진을 업로드해 제출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

## 성산 은행나무 이식 본격 작업 장성군, 소방서열 장성천변

장성군은 성산 은행나무 이식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성산 은행나무는 열매와 잎을 채취해 주민 소득을 확보할 목적으로 1970년대 식재된 가로수다. 마을을 노랗게 물들인 풍광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마을 상징처럼 자리잡았지만 주민들에게는 골칫거리였다. 뿌리가 보도블록을 망가뜨리거나 건물 담장에 균열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시장수요 감소로 방치된 열매들은 악취를 풍겼다.

장성군과 성산주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은행나무 이식에 대해 고민해 왔다.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군민참여단 회의를 진행하는 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지난해 말 장성군과 지역민들은 은행나무가 이식될 장소로 마을과 가까운 장성소방서 옆 장성천변을 최종 낙점했다. 군은 준비 작업을 거쳐 2월부터 이식작업에 착수했다.

장성군은 성산 은행나무가 자리잡게 될 장성천 일대를 마을 역사가 담긴 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은행나무를 보호하고 관리 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50년 추억을 품은 성산 은행나무를 아름다운 경관으로 재탄생시켜 역사·관광적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함평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함평군이 함평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함평군 제공

## 담양군 "교통사고 잦은 국·지방도 2개노선 개선"

### 사업비 3억2000만원 투입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국도 및 지방도 노선 중 2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도29호선 내 죽녹원 후문 회전교차로(담양밤부리 카페 일원)는 2021년에만 교통사고 4건(경상자 12명)이 발생한 곳으로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국지도 15호선 내 만성회전교차로(담빛수영장 일원)는 교통사고 6건(중상자 1명·경상자 8명)이 발생한 곳으로 담양군에서 3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죽녹원 후문 회전교차로의 경우 회전교차로 유형을 변경한다. 현재 2차로인 회전차로에서 '1차로형 회전차로와 우회

전차로'로 변경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만성회전교차로는 회전교차로의 내접원을 축소하고 교통안전표지 및 교원식 횡단보도, 노면색갈 유도선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 군수는 "교통사고 우려 지역의 개선사업을 통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고 확충해 안전한 담양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 곡성군, 먼저 찾아가는 '일하잡 버스' 사업 성황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오곡면사무소에서 올해 첫 '먼저 찾아가는 곡성군 일하잡(JOB) 버스' 사업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곡성군 일하잡(JOB) 버스는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는 이동식 일자리 상담 버스를 운영해 구직자들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하잡(JOB) 버스는 오곡면 마을회관 등을 찾다니며 사업을 홍보하며 취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취

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주민 50여 명이 찾아와 30명이 일자리를 신청했으며 취업메이크업, 취업지원 컨설팅, 일자리 상담, 직업심리검사 등 상담이 진행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일하잡(JOB) 버스는 지역주민의 일자리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자리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구직자가 최종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맞춤 상담 및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해 부터 곡성군 내 일자리 윈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하잡(JOB)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찾아가는 곡성군 일하잡(JOB) 버스'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 실시된다. 11개 읍면, 전남과 학대, 고등학교, 농공단지 등을 순회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곡성=김대영 기자